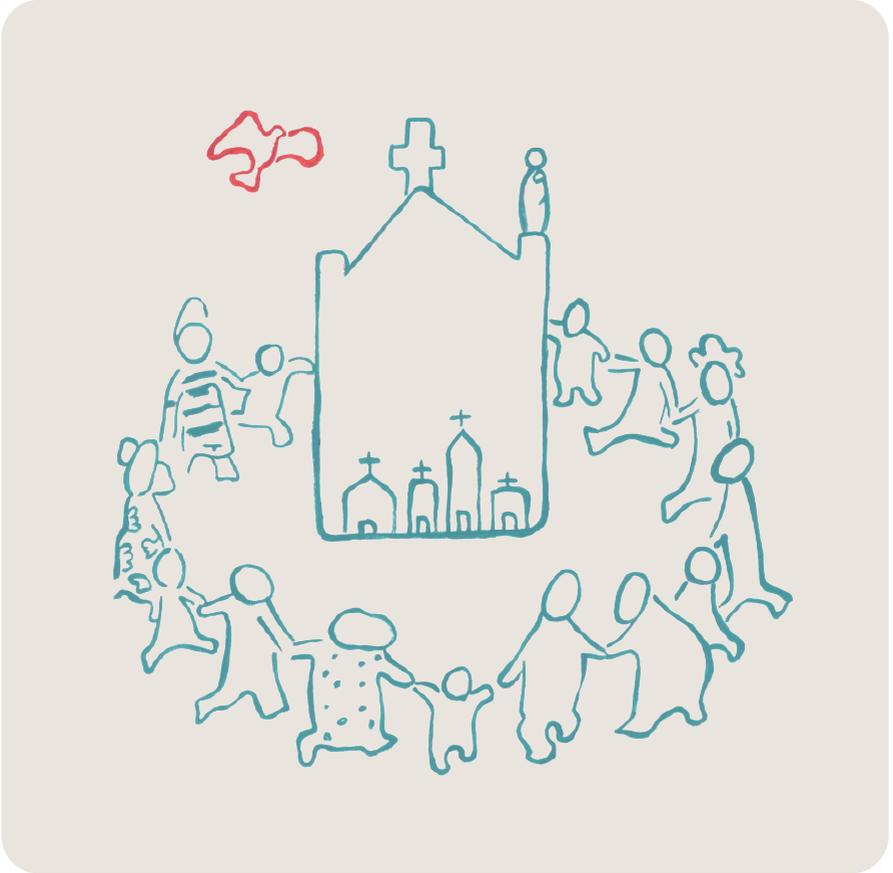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3 03 제170호

#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사목국



# 소공동체 모임 순서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소공동체 모임 시작 전에 매월 둘째 혹은 셋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 1. 시작성가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 |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 )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2. 인사 나누기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 진행 |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 3. 전 모임 기록 낭독

| 진행 |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 진행 |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1] 주님초대하기

###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5] 말씀 살기

- 1) 지난 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 [6] 마침기도

## 5. 궁금했어요『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진행 |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진행 |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 9. 마침성가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 |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 )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 사순 제3주일(3월 12일)

##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요한 4:5-42)



### 야곱의 우물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한 4:14)

이방인의 여인이 구세주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에게 영원히 샘솟는 물을 주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 죄를 씻어주는 생수이고, 끊임없이 샘솟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성령이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출처: 서울주보, 2014. 3. 23.)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23번 “십자가 지고 가시는”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시간 저희와 함께 하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 복음 4장 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5 예수님께서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6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7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9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대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10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1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12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까.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13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15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9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20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21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22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23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24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25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 하였다. 26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39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40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들을 머무르셨다. 41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42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요한 4,7)

목마른 이웃에게 마실 물을 나누어 마시는가?

†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요한 4,42)

사마리아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물이라는 것, 그 물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버틸 수 있는 시간은 3일정도가 고작입니다. 쓰나미 보셨죠? 물은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을 쓸어버립니다. 수영 못하시는 분들 자기 발이 닿지 못하는 깊이 물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죽음과 맞닿아 있는 공포입니다. 물은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형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지닌, 물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청합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말입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의 유대인들에는 배신이고,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의심 가는 행동입니다. 어느 양쪽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자기 민족에 대한 배척보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불목의 벽을 허물러 갔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기를, 서로 함께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사순시기를 보내며 불목하며 화해하지 못하는 이웃과 그리고 나 자신과 화해하고, 하느님과 화해해서 새로움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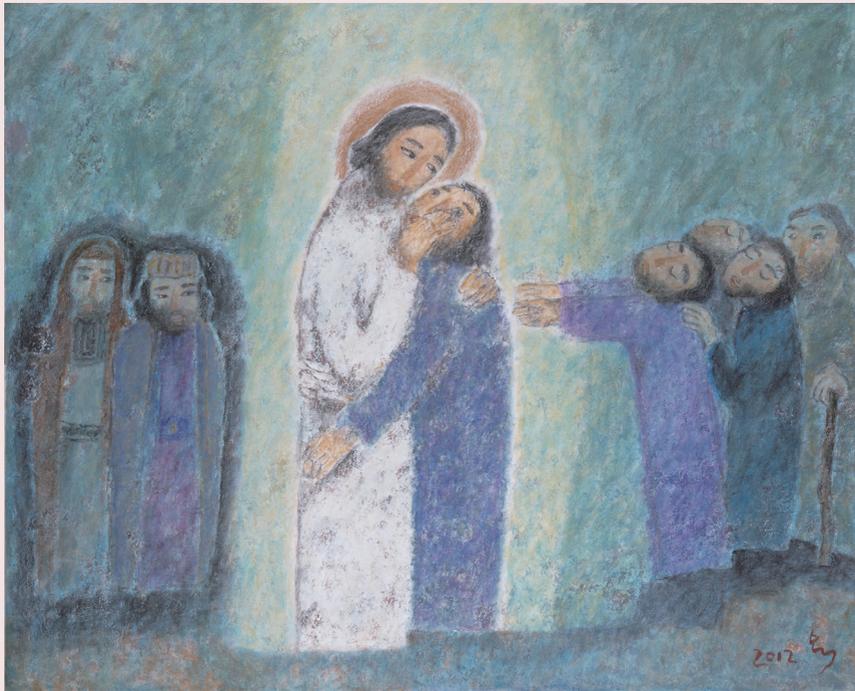
### 마침성가

-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23번 “십자가 지고 가시는”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사순 제4주일(3월 19일)

## 눈이 있으면서 보지 못하는가(요한 9,1-38)



###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한 9,4-5)

어둠은 죄와 죽음이며, 빛은 아름다움이고 생명인 하느님 자신입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빛과 어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빛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빛이신 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깁시다.

그림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출처: 서울주보, 2014. 3. 30.)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24번 “은혜로운 회개의 때”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 복음 9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1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6 예수님께서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7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8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 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9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이오.”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13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14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날은 안식일이였다. 15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6 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17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



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34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35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36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3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38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요한 9,1)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을 우리는 얼마나 공감합니까?

†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요한 9,37)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 얼마나 잘 볼 수 있을까? 시력이 좋은 사람은 비교적 좀 더 멀리, 그리고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와는 달리 시력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을수록 흐

리게 볼 수밖에 없죠. 시력이 좋은 좋지 않은 앞을 보는 것은 일정한 부분들뿐입니다. 오히려 아무리 잘 볼 수 있다 해도 그 외에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 있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종종 눈으로 봤으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귀로 들었으나 귀로 들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본 것은 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고, 우리가 들은 것은 귀가 아니라 듣고 싶은 우리 마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 보고 듣는 것이 결정되죠. 진정 내 마음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24번 “은혜로운 회개의 때”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완월성당 소공동체

## 지역분과위원장 임명숙(데레사)

완월성당은 올해 124주년을 맞이하는 마산교구의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성당입니다. 많은 신부님들이 거쳐 가시면서, 바뀌실 때마다 다양한 본당 생활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팬데믹의 힘든 시국으로 모든 단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공동체모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하신 본당 신부님께서 그동안 침체하여 있던 본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선 구역장, 반장 모임을 통해 구역을 새로 재편하고, 구역장, 반장을 봉사할 수 있는 분들로 새로 교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당 예산의 많은 부분을 구역분과로 편성하셔서, 구역 활성화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당에 처음 오신 분들, 다문화 가족들, 코로나19로 인해 냉담하던 분들이 다시 왔을 때 소속감을 느끼게 만들고, 본당 안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찾는 방법이 오직 구역 활동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2023년 완월본당 사목지침의 슬로건은 “내가 먼저 사랑하자”입니다. 이 슬로건의 의미는 내가 먼저 다가가 가까이 사는 반원들과 이웃들을 챙기고, 기도와 위로로 쉬고 있는 많은 분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징검다리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교중 미사 후 구역별 차 나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월성당에는 7구역 24반이 있습니다. 마당에는 매 주일 7구역을 상징하는 무지개 색깔 파라솔 7개가 피어있습니다. 파라솔 안에는 탁자와 의자, 탁자 위에는 음료와 과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

중미사 후, 전 신자들은 각자 구역별 파라솔로 찾아가서 자기 구역의 형제자매들과 음료와 차를 마시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답소를 나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으나 매주 만나니 반갑게 인사 나누며 돈독함과 생동감이 넘칩니다.

차 준비는 여성부 까리따스회에서, 파라솔 설치하는 남성부에서 한마음으로 기쁘게 봉사해 주십니다. 그동안 교중 미사 후 그냥 집으로 돌아갔지만, 잠시나마 구역별로 모여 차를 마시면서, 새로 오신 분들과 오랜 기간 쉬다가 나오신 분들도 쉽게 챙길 수 있게 되고, 3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소공동체모임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7개 구역의 파라솔 색깔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자”라는 능동적인 마음으로 서로 함께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마음에 드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 「누가 전례 안에서 활동하는가?」

전례 안에서 온 그리스도Christus totus, 곧 머리와 몸이 일하신다.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몸인 천상 교회와 지상 교회와 더불어 전례를 거행하신다.

### 해설

우리가 전례를 거행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몸,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결합된 모든 지체들이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전례 거행에 참여한다.

### 용어

#### 천상 교회와 지상 교회

가톨릭 교리는 전통적으로 교회를 셋으로 구분한다. 천상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늘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성인들을 가리키고, 지상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 신자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다른 한 교회는 정화 중인 교회, 곧 연옥 영혼들을 말한다.

\* 한남성서연구소에서 출판한 [말씀으로 익히는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누가 천상 전례를 거행하는가?」

천상 전례를 거행하는 이들은, 천사들, 구약과 신약의 성인들, 특히 천주의 성모, 사도들, 순교자들, 그리고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묵시7,9) 이들이다. 우리가 구원의 신비를 성사 안에서 거행할 때 우리는 이 영원한 전례에 참여한다.

### 해설

물론 천상 전례의 집전자는 그리스도이시지만, 온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천상 영광을 누리는 모든 이들이 천상 전례를 거행한다.

### 용어

#### 천상 전례

우리 순례의 목적지인 천상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는 전례로, 그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전과 참된 장막의 사제로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전례 현장 8).

#### 구약과 신약의 성인들

구약의 성인들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를 입어 천국에 들어간 이들이다. 꼭 교회가 성인으로 선언한 이들만이 아니라, 무명의 성인들도 다 포함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44,000명(묵시 7,4)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서 나온(묵시 7,9) 이들이다.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